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6, pp.81-117
<https://doi.org/10.29212/mh.2025..136.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259년 북계 成州 岐巖城戰鬪 승전의 역사적 성격

강재광 | 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편찬실 책임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성주 기암성전투 발발 이전 대몽외교·대몽전투 정황
 3. 성주 기암성의 위치와 방어 입지
 4. 성주 기암성전투 승전 원인과 전사적 의미
 5. 맺음말

초 록 성주 기암성은 조선 후기 지도류인 『동여도』·『대동여지도』·『대동방여전도』를 통해서 보면, 성천도호부 삼기면(지금의 북한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면)에 있는 두미산 좌측 산자락에 위치한 석성이었고 “험산대성”의 입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기암성에서 1259년(고종 46) 1월에 대몽전투가 벌어졌는데, 야별초 부대와 성주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여 몽골 장수 보파대가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몽골군 1개 부대를 크게 격파하였다. 기암성전투는 몽골 제6차 침입(1254~1259) 말엽에 고려가 북계 지역에서 거둔 마지막 승리이자 군·관·민이 협력하여 거둔 유일한 승리였다. 기암성에는 이미 1258년에 야별초 부대가 파견되어 있었는데, 비록 방호별감은 아니지만 방호별감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야별초 지유가 휘하 야별초 군사들(대략 200명 내외)과 성주 백성들을 총괄 지휘하여 몽골 기병대를 격퇴시켰다는 점이 특색이다.

기암성전투 승전 요인은 ①기암성이 비류강·기창후천에 둘러싸여 있고 비교적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적군 방어에 유리하였다는 점, ②고려 최정예 군사집단이었던 야별초가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③몽골 제5차 침입 때까지도 몽골군에게 한 번도 침입을 받지 않았던 성주민의 항전 역량이 1259년까지 일정하게 보전되고 있었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하여 북계에 주둔 중인 몽골군은 북계의 여러 산성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고, 고려와 몽골 사이에서 태자친조를 조건으로 강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되어 결국 1259년 4월에 대몽강화가 체결되는 데 일조하였다.

주제어(Key Word) : 성주, 기암성, 기암성전투, 동여도, 대동여지도, 대동방여전도, 야별초, 야별초 지유, 험산대성, 보파대, 태자친조, 대몽강화

1. 머리말

고려와 몽골과의 전쟁은 장기간에 걸쳐 거의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었는데,¹⁾ 특히 몽골 제6차 침입의 경우 무려 6년이나 지속되었고 몽골군 주력군이 철군하지 않고 계속 北界에 주둔하면서 침공을 이어나갔던 만큼 그 피해가 가장 극심하였다.²⁾ 몽골 제6차 침입 말엽에 西海道의 여러 산성과 천연동굴이 몽골군에게 함락되고, 1258년(고종 45) 12월 東界民의 반란으로 和州 이북 땅에 雙城總管府가 설치되는 등 고려가 수세에 몰렸다. 바로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1259년(고종 46) 1월 북계에서 기암성 전투가 발발하여 고려 측이 승전고를 울렸다.³⁾

기암성전투는 대몽전쟁 말엽 북계 방면에서 발발한 최후의 전투이자 고려 측 승전으로서의 전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 전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논문은 지금까지 단 한편도 없는 실

1) 고려시대 대몽전쟁(여몽전쟁)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업적은 다음이 크게 참고가 된다. 柳在城, 『對蒙抗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8; 尹龍嫻,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윤용혁,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해안, 2011; 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의 對應』, 경인문화사, 2011; 김호준, 『고려 대몽항쟁과 축성』, 서경문화사, 2017.

2) 대몽전쟁(여몽전쟁) 기간 중에 몽골 제6차 침입은 1254년(고종 41)에 시작되어 1259년(고종 46)에 종결되었으므로 무려 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몽골군 원수 車羅大는 압록강을 건너 철군하지 않고 자기 휘하의 군사들을 고려 北界에 계속 주둔시키면서 몽골군 증원부대를 기다린 후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 몽골 제6차 침입은 전쟁기간이 유독 길었음 뿐만 아니라 1254년 한 해에만 붙잡혀간 고려 측 포로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몽골군이 고려 측에 입힌 피해가 가장 큰 전쟁으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3) 『고려사』권24, 고종 46년 1월 정미.

정이다. 그 이유는 기암성이라는 지명이 『고려사』 지리지에서조차 보이지 않으며, 조선시대 地誌類인 『大東地志』에서 기암성의 방향만 확인되고⁴⁾ 조선시대 지도류에서 기암성의 위치만 확인될⁵⁾ 뿐 기암성의 길이, 높이, 방어시설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이글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고려시대 기암성의 위치를 조선 후기 지도류에서 찾아본 후에 기암성의 방어 입지를 살펴보고 기암성전투의 승리 원인과 대몽전쟁에서 차지하는 전사적 의미를 부여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1259년 1월 기암성전투가 발발하기 이전의 대몽외교·대몽전투 전개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성주의 기암성에서 대몽전투가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성주 기암성의 위치를 조선 후기 지도류인 『東輿圖』·『大東輿地圖』·『大東方輿全圖』를⁶⁾ 통해 찾아보고, 고려시대 雲中道의 교통로를 통해 성주 기암성이 지니고 있는 방어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기암성전투의 승리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대몽전쟁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사적 의미를 부여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기암성전투가 야별초 부대와 기암성 입보민이 결합된 형태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기암성에 급파된 郎將급의 야별초 지유가 防護別監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 최고지휘

4)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기암성의 방향이 확인되는 것은 『대동지지』가 유일하다. 『大東地志』 권22, 平安道十三邑 成川 城池, “岐巖城 北三十里.”

5) 조선 후기 고지도인 『동여도』, 『대동여지도』, 『대동방여전도』 등에서 조선시대 成川都護府(고려시대 成州) 기암성의 위치가 확인된다. 이글에서는 이들 조선 후기 고지도 3건을 모두 다 활용해서 기암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기암성이 지니고 있는 방어 입지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6) 『동여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발행본(2003년), 『대동여지도』는 1864년(고종 1) 간행본(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대동방여전도』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관으로서 크게 활약했음을 타진해보고, 기암성전투의 승리로 인해 북계에 주둔한 몽골군 일부 부대가 동계 방면의 쌍성총관부에 호응하여 양동작전을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론적 연구를 통해 그간 고려시대사 학계에서 관심권 밖에 있었던 성주 기암성전투에 대한 전말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필자의 논리 비약에 대해서는 선학제현의 질정과 교시를 바란다.

2. 성주 기암성전투 발발 이전 대몽외교 · 대몽전투 정황

몽골의 제6차 침입(1254~1259) 중에서 4번째 침입(1258~1259)은 1258년 6월 11일(기축일)에 시작되었는데,⁷⁾ 몽골군 총사령관은 이전처럼 征東元帥 車羅大였고, 새롭게 余愁達 · 甫波大 등의 장수가 가세하였다. 몽골 침입이 다시 시작되자 강도 조정에서는 북계 여러 성의 호장과 낭장에게 각각 백은 1근과 검은 비단 2필씩을 하사하여⁸⁾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몽항전의 기치를 높였다. 같은 해 6월 17일(을미일)에 몽골군 원수 차라대가 波乎只 등 6인을 보내오자⁹⁾ 고종이 梯浦館에서 몽골 사신을 접견하였다. 파호지는 고려왕과 태자가 서경으로 나와 항복한다면 곧바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라는 차라대의 말을 전하였는데, 고종은 자신은 이미 늙고 병들어 먼 길을 갈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므로 永安公 王僖와 지중추원사 金寶鼎을 차라대 진영

7) 『고려사』권24, 고종 45년 6월 기축.

8) 『고려사』권24, 고종 45년 6월 임진.

9) 『고려사』권24, 고종 45년 6월 을미.

으로 보내서¹⁰⁾ 몽골 측과 외교적 협상을 하게 하였다.

강도 조정으로서는 고종과 태자가 함께 서경으로 나아가 차라대 군영에서 항복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실제로 병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몽항전을 지지하고 있었던 고종 자신이 출륙항복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이때부터 고려와 몽골 사이에서 고려 태자의 출륙항복 문제를 두고서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었다. 반면 고려왕과 태자 대신에 영안공 왕희와 지중추원사 김보정이 몽골군 진영에 오게 되자 차라대는 몽골군의 남진을 명령하였다. 같은 해 6월 22일(경자일)에 몽골군 척후기가 서경을 통과하였고,¹¹⁾ 같은 달 26일(갑진일)에는 몽골군 척후기가 서해도 鹽州·白州 등지에 이르렀고 여수달이 지휘하는 몽골군은 평주 寶山驛에 주둔하였다.¹²⁾

같은 해 6월 26일에 김보정이 여수달이 보낸 몽골 사신 8인과 함께 오자¹³⁾ 같은 달 29일(정미일)에 고종이 제포관으로 나아가 김보정과 몽골 사신을 맞이하였는데, 김보정은 만약 태자를 보내 항복하면 그날로 군대를 철수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대를 풀어 남쪽 지역으로 진격할 것이라는 여수달의 말을 전하였다.¹⁴⁾ 이에 강도 조정에서는 같은 해 7월 5일(임자일)에 다시 김보정을 여수달 진영으로 보내 여수달이 기병 몇 명만을 데리고 白馬山에 와서 태자를 접견하라고 요청하였다.¹⁵⁾ 이러한 고려 측 요청에 대하여 여수달은 태자가 나를 보고자 한다면 猫串江 가에서 만나도록 하자고 하였다.¹⁶⁾ 강도 조정은 여수달이

10) 『고려사』권24, 고종 45년 6월 병신.

11) 『고려사』권24, 고종 45년 6월 경자.

12) 『고려사』권24, 고종 45년 6월 갑진.

13) 『고려사』권24, 고종 45년 6월 갑진.

14) 『고려사』권24, 고종 45년 6월 정미.

15) 『고려사』권24, 고종 45년 7월 임자.

16) 『고려사』권24, 고종 45년 7월 임자.

昇天府에서 더 먼 곳인 묘곶강으로 태자를 불러 보려고 의도하자 예측하지 못한 변고가 있을까 두려워하였다. 이에 같은 해 7월 8일(을묘일)에 원외랑 李祿綏를 여수달 진영에 보내 태자의 병이 조금 나아지면 나아가서 만날 것이라고 답하였다.¹⁷⁾

강도 조정이 계속해서 태자의 출륙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자 여수달은 같은 해 7월 11일(무오일)에 사신을 보내 고려가 태자를 보내지 않은 것을 크게 책망하였는데, 고종 역시 육지로 나와 여수달을 맞이하는 것을 거부하였다.¹⁸⁾ 이윽고 같은 달 13일(경신일)에 이녹수가 강도에 돌아와서 여수달이 고려의 거짓을 알았으니 군대를 풀어서 침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하였다.¹⁹⁾

여·몽 사이에서 태자의 출륙 문제를 놓고 협상이 결렬되자 차라대는 같은 해 8월 13일(경인일)에 군대를 거느리고 옛 수도(개경)에 와서 주둔하였고,²⁰⁾ 같은 날 몽골의 유격대 기병들이 승천부와 交河, 峯城, 守安, 童城으로 흩어져 들어와 백성들이 기르는 양과 말을 노략질하였다.²¹⁾ 차라대는 군사들로 하여금 승천부 주변 서해도 일대를 노략질하게 하여 강도 조정을 압박하면서 같은 달 21일(무술일)에 蒙古大 등 15인을 보내²²⁾ 고려 측과 협상을 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달 22일(기해일)에 고종이 梯浦宮에 행차하여 몽골 사신 몽고대 등을 접견하였는데, 몽고대가 고려 태자가 육지로 나오면 군대를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하자 고종은 태자가 병이 났는데 어찌 육지로 나갈 수 있겠느냐고²³⁾ 하면서 몽골 측 제의를 거부하였다.

17) 『고려사』권24, 고종 45년 7월 을묘.

18) 『고려사』권24, 고종 45년 7월 무오.

19) 『고려사』권24, 고종 45년 7월 경신.

20) 『고려사』권24, 고종 45년 8월 경인.

21) 『고려사』권24, 고종 45년 8월 경인.

22) 『고려사』권24, 고종 45년 8월 무술.

23) 『고려사』권24, 고종 45년 8월 기해.

고종이 태자의 출륙을 완강하게 거부하자 차라대는 고려 내륙을 공격하게 하였다. 같은 해 8월 28일(을사일)에 몽골군이 서해도의 嘉殊窟²⁴⁾과 陽波穴²⁵⁾을 공격하여 모두 함락시켰다. 천험의 요새 양파혈을 지키던 수안현령 朴林宗은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양파혈 방호별감 周尹은 별초를 이끌고 나가서 몽골군과 싸웠으나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가수굴 방호별감 盧克昌 또한 몽골군에게 사로잡혔다.²⁶⁾ 양파혈·가수굴에 방호별감과 별초가 파견되어 있을 정도로 이곳들은 서해도 방면에서 중요한 천연동굴 입보처로 여겨지거니와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가 몽골군에게 함락되었다는 것은 대몽전쟁 말엽 고려가 처한 위기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서해도의 양파혈·가수굴이 몽골군에게 함락된 후 얼마 안 지나서 같은 해 9월 6일(임자일)에 몽골군 기병 300여 명이 甲串江 건너편에 주둔하여²⁷⁾ 강도의 고려군 방비상태를 정탐하고 본군의 남진을 기다렸다. 같은 달 12일(무오일)에 廣福山城²⁸⁾에 피난한 향리와 백성들이 방호별감 柳邦才를 죽이고 몽골군에게 항복하는²⁹⁾ 투몽사태가 발생하였다. 광복산성 입보민의 자진 항복은 제6차 대몽전쟁 말엽에 잇따라 계속되었던 투몽사태의 효시가 된 것으로서 예의주시 된다.

24) 嘉殊窟은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佳殊窟’로 나온다. 『고려사』권58, 志12, 地理 3, 西海道 黃州牧 土山縣 참조.

25) 陽波穴이 西海道の 어디에 있었던 천연동굴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嘉殊窟과 비슷한 입지의 동물이었을 것이다.

26) 『고려사』권24, 고종 45년 8월 을사.

27) 『고려사』권24, 고종 45년 9월 임자.

28) 廣福山城은 『新增東國輿地勝覽』권47, 江原道 伊川縣 山川조에서 확인되는데 강원도 이천현에 위치하였다. 광복산성이 조선시대 강원도 이천현에 위치했으므로 고려시대에는 동계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동계에 인접한 곳에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29) 『고려사』권24, 고종 45년 9월 무오.

광복산성이 투항하자 같은 해 9월 24일(경오일)에 몽골군 본진이 窄梁에서부터 와서 갑곶강 밖에 진을 치고 온 산과 들에 위싸³⁰⁾ 강화도 건너편에서 무력시위를 펼쳤다. 몽골군의 무력시위는 강도 조정에 대해 태자 출륙을 더욱 더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보아지거니와 고려로서는 일대 위기가 도래하였다. 같은 달 28일(갑술일)에 安慶公 王滄이 몽골 사신과 함께 昇天館으로 돌아오자³¹⁾ 같은 달 29일(을해일)에 고종이 昇天關에 행차하여 몽골 사신을 맞이하였다.³²⁾ 이후 강도 조정은 같은 해 10월 4일(기묘일)에 兪光宰를 차라대 진영에 보내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철군을 요청하였다.³³⁾ 강도 조정에서 몽골군 원수 차라대에게 槁饋外交를 펼친 셈인데,³⁴⁾ 이때 외교는 몽골군 진영 내부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몽골군에게 서해도의 요해처가 함락당하거나 산성이 스스로 항복하는 등 고려 측에게 전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다가 忠州別抄의 승전보가 울려 왔다. 같은 해 10월에 충주 별초가 朴達峴에 매복하고 있다가 몽골군을 날쌔게 급습하여 포로로 잡혔던 고려인들과 소, 말, 병장기를 탈취하였다.³⁵⁾ 여기서 충주별초는 중앙군(삼별초)이 아니라 충주의 별초군이라고 여겨지거니와 박달현 매복 작전을 통해 포로로 잡혀가던 고려 사람

30) 『고려사』권24, 고종 45년 9월 경오.

31) 『고려사』권24, 고종 45년 9월 갑술.

32) 『고려사』권24, 고종 45년 9월 을해.

33) 『고려사』권24, 고종 45년 10월 기묘.

34) 槁饋外交는 적군 진영으로 나아가 적군에게 음식을 후하게 대접해서 그들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和親意思를 전달하는 외교방식이었다. 호궤외교는 대몽전 쟁기에 모두 9차례 시행되었는데, 고려가 보낸 사신이 적군 총사령관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講和하겠다는 뜻을 전달함과 아울러 철군을 요청하고, 적군 진영의 동태(군대의 사기, 군사들의 수효, 작전상황 등)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景仁文化社, 2011, 155~160쪽.

35) 『고려사』권24, 고종 45년 10월.

들을 구해내는 전과를³⁶⁾ 올렸던 것이다. 충주별초의 박달현전투 승리는 같은 해 10월 하순의 일로 추정되는데 1258년 6월부터 10월까지 고려 측이 거둔 유일한 승리였다. 같은 해 11월 11일(병진일)에는 몽골 千戶 劉於介가 휘하 9인을 데리고 와서 고려에 투항하였는데,³⁷⁾ 유어개가 투항한 이유는 자세하지 않으나 박달현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³⁸⁾

같은 해 동계 방면에서는 가을까지 커다란 전투가 치러지지 않았으나 12월 14일(기축일) 몽골의 散吉 대왕이 몽골군을 거느리고 와서 옛 화주 땅에 주둔함으로써³⁹⁾ 동계 방면에서도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이후 龍津縣 사람 趙暉와 定州 사람 卓靑이 모반하여 화주 이북 땅을 몽골에 넘겨주자 몽골이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고 조휘를 摠管으로, 탁청을 천호로 임명하였다.⁴⁰⁾ 쌍성총관부의 설치는 동북면병마사 慎執平의 해도입보강행에 반대한 동계민의 투몽으로 인해⁴¹⁾ 이루어진 것이었고 향후 몽골군과 投蒙高麗軍民의 남진 공격이 예상되어 강도 조정으로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쌍성총관부 설치 이후 같은 해 12월 23일(무술일)에는 達甫城⁴²⁾ 사람들이 방호별감 鄭

36) 忠州別抄가 朴達峴에서 몽골군을 기습하여 승리했는데, 이때 충주별초의 수효와 살상한 몽골군 규모를 전혀 알 수 없다. 충주별초는 몽골군 본진이 아니라 몽골군 선봉대 1개 부대를 기습하여 일정하게 피해를 준 것으로 여겨진다.

37) 『고려사』권24, 고종 45년 11월 병진.

38) 몽골 千戶 劉於介가 투항한 이유가 사료 상에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투항 직전 1258년(고종 45) 10월에 있었던 박달현전투와 연계해서 해석해본다면, 유어개는 박달현전투에서 충주별초에게 괴멸되어 어쩔 수 없이 江都 조정에 투항한 것이 아닐까 한다.

39) 『고려사』권24, 고종 45년 12월 기축.

40) 『고려사』권24, 고종 45년 12월 기축.

41) 『고려사절요』권17, 고종 45년 12월.

42) 達甫城은 조선시대 지지류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황해도 곡산군에 達寶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달보산에 있었던 성이 바로 달보성이었을 것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권42, 黃海道 谷山郡 山川 참조.

琪 등을 붙잡아서 몽골에 투항하는⁴³⁾ 투몽사태가 또 발생하였다. 달보성의 투항은 이전 광복산성의 투항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써 대몽전쟁기 마지막 투몽사태였다.

성주 기암성전투 발발 이전까지 몽골은 고종·태자의 서경에서의 출륙 항복을 요구했다가 태자의 출륙 항복을 요구하였고 이게 거부되자 태자의 승천부 출륙을 요구하여 강화 협상을 이어나갔다. 고려는 고종의 출륙 항복은 강경하게 거부하였고 이후 태자의 승천부 출륙을 조건으로 몽골 측과 조율에 들어갔다. 이때 고려는 서해도 방면에서 1258년 8월 양파혈·가수굴이 함락당하였고, 같은 해 9월 광복산성이 투몽하였으며, 동계 방면에서는 같은 해 12월에 쌍성총관부가 설치되는 등 수세에 몰렸다. 특히 양파혈·가수굴은 강도 조정이 방호별감을 파견하였고 별초군이 조직되어 있을 정도로 대몽전쟁기에 군사적인 ‘戌’자리로서 중요시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수’자리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험준한 지대의 천연동굴까지 몽골군에 의해 함락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쌍성총관부의 설치는 몽골군과 투몽고려군민의 합동작전으로 화주 이남 동계 방면으로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계 방면에 주둔 중인 몽골군 1개 부대가 쌍성총관부와 양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략전술적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기암성전투 발발 직전까지 서해도 요해처가 몽골군에 함락 당하였거나 스스로 몽골군에 투항하였고, 쌍성총관부가 설립됨에 따라 북계·동계 양면에서 몽골군의 양동작전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그 당시 대몽전쟁 상황 속에서, 몽골군은 강도 조정 측에 태자 출륙을 더욱 더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계의 쌍성총관부와 양동작전을 펼치기 위해 북계에 위치한 어느 요해처

43) 『고려사』권24, 고종 45년 12월 무술.

산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킬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몽골군 작전 개념에 의해 북계의 요해처였던 기암성이 몽골군의 새로운 공격 목표로 설정되었고⁴⁴⁾ 1259년 초에 기암성전투가 발발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북계의 몽골군은 쌍성총관부와의 연락 및 양동작전을 위해서라도 동계에서 가까운 북계 동쪽에 있는 성주 기암성을 함락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몽골군이 성주를 손아귀에 넣는다는 것은 성주를 통해서 동계 방면으로 곧바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므로 1259년 초에 성주 기암성에서 여·몽 사이에 일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본다.

3. 성주 기암성의 위치와 방어 입지

성주 기암성은 조선시대 지지류 중에서는 오로지 『대동지지』에서만 발견되는데, 기암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기암성은 북으로 30리에 있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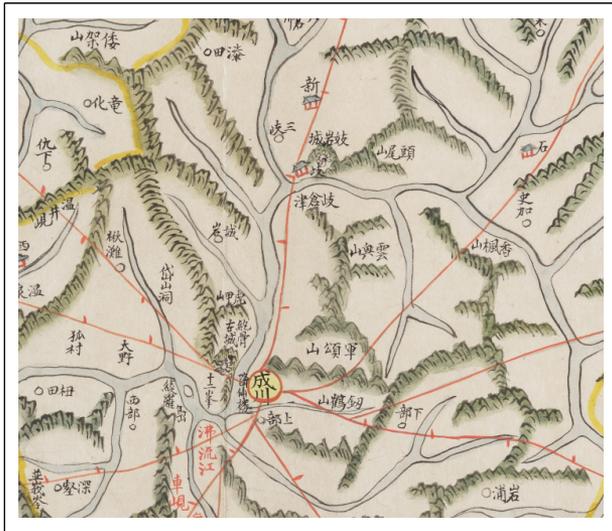
『대동지지』 평안도 成川 城池조에서 기암성은 조선시대 성천도

44) 『新增東國輿地勝覽』권54, 平安道 成川都護府 城郭조 및 『大東地志』권22, 平安道十三邑 成川 城池조에 의하면 성천도호부(고려 때 북계 성주) 읍치 서쪽 5리에 屹骨城(屹骨山城)이 있었는데, 흘골성은 1천여 명을 능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성이었고 沸流江이 천연 壕子の 역할을 하는 천혜의 요새였다. 1259년(고종 46) 당시 몽골군이 기암성 이외에 이 흘골성을 공격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설령 흘골성이 몽골군의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주 관리와 백성들이 흘골성에 입보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또한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 몽골군이 성주의 기암성을 새로운 공격 목표로 삼아 쳐들어왔다는 점이고 그들이 기암성전투에서 패퇴했다는 사실이다.

45) 『大東地志』권22, 平安道十三邑 成川 城池.

호부(고려시대 성주) 읍치 북쪽으로 30리에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기암성의 길이(둘레), 높이 및 방어시설 및 성 안의 건물(군창 등)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고려시대까지는 기암성이 존재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기암성이 크게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었던 데 있지 않았을까 한다.⁴⁶⁾

위의 『대동지지』의 내용만으로는 기암성의 방향만 알 수 있을 뿐 기암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조선 후기 지도류를 통해서 기암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古山子 金正浩가 제작한 지도들 중에서 조선 후기에 가장 먼저 편찬된 『동여도』가 주목된다.⁴⁷⁾



〈도면 1. 동여도〉

46) 그게 아니라면 기암성전투 승전 이후 고려무인정권이 무너지고 강도 조절이 出陸還都를 단행하여 몽골에 복속된 이후 원간섭기에 몽골이 기암성을 훼손하였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본다.

47) 『東輿圖』는 古山子 金正浩가 철종 연간에 제작했는데, 1856년(철종 7)에서 1861년(철종 12) 사이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동여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권, 1991, 303쪽).

위의 <도면 1. 동여도>를 보면, 기암성은 조선시대 성천도호부 읍치 북쪽에 위치하는데, 頭尾山의 좌측 산자락에 입지하고 있고 돌로 축조된 石城이었음을⁴⁸⁾ 포착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는 성천도호부 三岐面에 위치하는데, 삼기면은 沸流江(沸流水)와 岐倉後川이 세 갈래로 서로 만나는 합수목이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지명이다.⁴⁹⁾ 이러한 지명 유래를 감안한다면, 기암성은 두 하천이 세 갈래로 만나는 지점인 삼기면 내에 있는 두미산 좌측 산자락에 입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암성 바로 좌측에 창고(岐倉)가 있고 북쪽에도 창고(新倉)가 있다.⁵⁰⁾ 또한, 도로(지도에서 붉은색 선)가 성천도호부에서 기암성을 거쳐 북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를 놓고 볼 때, 조선시대 기암성은 교통로 상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창 등의 창고를 보존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성천도호부 삼기면에 있었던 기암성이 교통로 상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고려시대 북계 성주에 있었던 기암성의 입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고산자 김정호가 1861년(철종 12)에 제작하였던 『대동여지도』에서도 기암성의 위치가 확인된다.

48) <도면 1. 동여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岐巖城’ 글자 바로 아래에 여러 개의 작은 동그란 원모양을 그려 넣었는데 이는 기암성이 石城임을 표시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49) 평화문제연구소, 「평안남도 성천군 옛 이름 기암리, 삼기방, 삼기면」, 『조선향토대백과』, 2008.

50) 『東輿圖』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암성 바로 앞 좌측에 岐倉이 있고, 북쪽으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新倉이 있음이 발견된다.



〈도면 3. 대동방여전도〉

위의 〈도면 3. 대동방여전도〉를 보면, 『동여도』와 같이 기암성이 두미산 좌측 끝자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동방여전도』는 『동여도』와 두 가지 다른 점이 발견된다. 첫째, 기암성이 갈색 원형 점 표시로 되어 있어서 석성인지 불분명하다. 둘째, 『동여도』에서는 기창이 기암성 바로 왼쪽에 있는데 비해서 『대동방여전도』에서는 기창이 기암성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예외로 하면 『대동방여전도』에서 나타나는 기암성의 위치는 『동여도』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 후기 고지도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기암성은 성천도호부(고려시대 성주) 삼기면 두미산 좌측 산자락에 위치하였는데, 비류강(비류수)과 기창후천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비교적 험준한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중요한 창고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암성은 현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 현지에서 실

제 조사도 할 수 없으므로 그 규모(길이, 높이, 폭 등) 및 각종 방어시설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런데 『고려사』 병지에서 고려시대 성주의 주진군 행군수가 744명으로 나타나고⁵²⁾ 기암성에는 성주 백성들이 다수 입보했을 것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성의 규모는 주진군과 입보민을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비교적 큰 성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⁵³⁾ 앞의 <도면 1. 동여도>를 보면 석성인 기암성이 비교적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⁵⁴⁾ 기암성이 대성으로서의 입지를 지니고 있었기에 이 성에 야별초와 성주 주진군, 성주민이 입보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 성에서 몽골군 1개 부대와와의 전투가 벌어진 것이라 하겠다.

고려시대 성주의 교통로를 분석해보면, 성주 기암성의 전략적인 방어 입지를 유추하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고려시대 22역도 가운데 성주가 포함되어 있는 운중도의 교통로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고려 22역도 중 북계 운중도 교통로⁵⁵⁾

역도명	교통로	비고
운중도 A길	서경 → 자주 → 순주 → 개주 → 영변 → 운주 → 창주	순주 오른쪽에 성주가 위치함
운중도 B길	양덕군 → 영원진 → 희주	양덕군 왼쪽에 성주가 위치함

52) 『고려사』권83, 兵志3, 州縣軍 北界 成州.

53) 물론 대몽전쟁기에 성주의 州鎭軍 행군수 744명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한편으로 흘골산성에서의 대몽항전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기암성에 입보하였던 야별초 부대 및 성주민의 총합은 생각보다 적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1259년 1월에 기암성에서 대몽전투가 벌어졌고 기암성이 대성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족히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보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54) 본문의 <도면1. 동여도>를 보면, 기암성이 석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주 읍치 서북쪽의 흘골산성보다 약간 더 크게 그려져 있다.

55) <표 1>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도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권, 1991, 799쪽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알려둔다.

위의 <표 1>을 보면, 고려시대 운중도는 두 갈래의 교통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운중도 A길인데, 서경에서 창주에 이르는 교통로이며, 운중도의 핵심적인 도로망이다. 다른 하나는 운중도 B길인데, 양덕군에서 희주에 이르는 교통로이다. 운중도 A길에 순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리상으로 순주 바로 오른쪽에 성주가 자리한다. 그리고 운중도 B길의 시작점인 양덕군 바로 왼쪽에 성주가 위치한다. 따라서 북계 성주는 고려시대 운중도 A길과 B길의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주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운중도 A길의 순주에서 운중도 B길의 양덕군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주를 거쳐야만 했다. 현대의 북한 지도를 보더라도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면은 평안남도 순천군(고려시대의 순주)에 바로 접해 있다. 기암성이 속해 있는 성천군 삼덕면이 평안남도 순천군에 인접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시대 운중도 교통로 분석을 통해서 성주 기암성은 지리적으로 운중도 A길의 순주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운중도 A길(순주)에서 운중도 B길(양덕군)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면 두미산에 위치한 기암성은 서쪽의 순주 방면에서 성주로 쳐들어 온 몽골군을 방어하여 그들이 성주 동쪽의 양덕군 방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 중국에는 그들의 쌍성총관부 방면 진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4. 성주 기암성전투 승전 원인과 전사적 의미

대몽전쟁 말엽인 1259년 1월에 성주 기암성에서 대몽전투가 발발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의 사료에서 확인된다.

B. 정미일에 몽골군이 성주 기암성을 공격하였는데, 야별초가 성 안의 사람들을 이끌고 싸워서 크게 이겼다.⁵⁶⁾

위의 사료 B를 보면, 1259년 1월 3일(정미일)에 몽골군이 성주의 기암성을 공격하자 야별초가 기암성 안의 사람들을 이끌고 싸워서 그들을 크게 이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료 B에서 기암성을 공격한 몽골군 부대의 정체, 야별초 병력 규모, 야별초 지휘관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 방호별감이 기암성에 파견되어 있었는지, 야별초와 기암성 입보민의 승전 배경 등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하나씩 고찰해보기로 하자.

먼저, 기암성을 공격한 몽골군 부대의 정체이다. 몽골 제6차 침입의 총사령관은 차라대였는데, 그는 1258년 8월 당시 옛 수도 개경에 주둔하면서⁵⁷⁾ 해를 넘겨 다음 해까지 고려 측에 계속 태자친조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몽골군 총사령관 차라대가 직접 기암성을 공격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차라대의 부장으로 여수달과 보파대가 1258년 6월에 고려 북계 거주, 광주에 각기 주둔하였고,⁵⁸⁾ 이들 중 여수달은 1258년 6월에 평주 보산역에 주둔하면서⁵⁹⁾ 그해 연말까지 태자친조를 고려 측에 강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수달 역시 성주 기암성을 직접 공격했을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면 사료 상에서 군대를 이끌고 남진하였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보파대가 성주 기암성을 공격하였던 몽골 측 장수였을 개연성이 있다.⁶⁰⁾ 보파대가 기암성을 공격하

56) 『고려사』권24, 고종 46년 1월 정미.

57) 『고려사』권24, 고종 45년 8월 경인.

58) 『고려사』권24, 고종 45년 6월 기축.

59) 『고려사』권24, 고종 45년 6월 갑진.

60) 성주 기암성을 공격한 주체가 몽골 장수 甫波大라고 단정지를 수는 없다. 하지만 『고려사』에서 몽골군 元帥 車羅大, 副將 余愁達의 경우 계속 남진 기사가 등

였다면 그가 직접 거느린 1천 기병대가 주력이 되었음에는⁶¹⁾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보파대는 최초 주둔지 광주에서 운중도의 순주 방면으로 남하하여 성주 기암성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야별초의 병력 규모와 야별초 지휘관이 누구였으며 방호별감이 기암성에 파견되어 있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료 B에서 야별초 병력 규모는 나오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야별초 부대는 100~200명 내외로 전략적 요충지에 분견되었기⁶²⁾ 때문에 기암성전투에 참전하였던 야별초 병력도 100~200명 정도였거나 2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야별초 부대를 이끌었던 지휘관의 성명 및 무관직은 알 수 없으나 흔히 야별초 병력은 야별초 지유가 이끌었기 때문에 야별초 지유가 기암성전투에서 야별초 군사들과 입보민을 총지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기암성에 방호별감이 파견되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성주의 요해처 기암성에서 몽골군과 전투가 벌어졌을 만큼 대몽전쟁 말엽에 기암성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었으므로 기암성에 방호별감이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⁶³⁾ 하지만 같은 시기에 양파

장하는 반면 보파대는 서해도, 개경까지 남하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북계 郭州에 주둔했던 보파대가 성주 기암성을 공격하였던 몽골 측 장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61) 만약 浦波大가 성주의 기암성을 공격하였다면 그가 직접 휘하에서 거느렸던 1천 기병이 주력군이 되었을 것이고 북계에 주둔 중인 일부 다른 몽골군 부대가 보조부대로 합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62) 야별초가 최초로 대몽전투에 투입된 것은 1235년(고종 22) 夜別抄道領 李裕貞의 사례가 처음인데, 이유정은 160명의 야별초 군사들을 거느렸다. 『고려사』권23, 고종 22년 8월 辛亥 참조. 이후 1236년(고종 23) 夜別抄指諭 李林壽와 朴仁傑이 각각 夜別抄 100여 명을 거느리고 몽골군 진영으로 향한 바가 있다. 『고려사』권23, 고종 23년 8월 己酉 참조.
- 63) 윤용혁은 대몽전쟁 말엽 기암성에 방호별감이 파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윤용혁, 앞의 책, 1991, 332쪽.

혈, 가수굴, 광복산성, 달보성, 金剛城,⁶⁴⁾ 寒溪山城⁶⁵⁾ 등에 방호별감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방호별감 파견 지역의 北限界는 서해도와 동계 중부권 지역을 잇는 선이었고⁶⁶⁾ 사료 B에서 방호별감 자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기암성에 방호별감이 파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⁶⁷⁾ 다만, 성주 기암성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기암성전투 이전에 야별초가 이미 성주에 파견되어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 기암성에 파견된 야별초 지유가 방호별감이 아니었더라도 방호별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은⁶⁸⁾ 열어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별초와 기암성 입보민의 승전 배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료 B에서는 기암성전투 승전만 짚막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승전 이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앞 장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석성인 기암성이 대성의 입지를 지니고 있어서 많은 수의 군사와 백성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고려 별초군 중에서도 최정예 군사집단이었던 야별초가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 야별초의 전투 참여는

64) 몽골 제6차 침입 당시 金剛城에는 王仲宣이 방호별감으로 파견되어 있었음은 다음의 기록에서 잘 확인된다. 『고려사절요』권17, 고종 46년 3월 참조.

65) 몽골 제6차 침입 당시 寒溪山城에는 安洪敏이 방호별감으로 파견되어 있었다. 『고려사절요』권17, 고종 46년 2월 참조.

66) 홍민호, 「고려·몽골 전쟁기 방호별감(防護別監)의 운영과 내륙 입보의 보완」, 『한국사연구』193, 2021, 163~167쪽.

67) 대몽전쟁기에 방호별감은 37명 정도가 전국의 요해처 산성(혹은 요해처 천연동굴)에 파견되었고, 주로 서해도 이남 지역에 분견되었다. 북계 동부 내륙에 위치한 성주 기암성까지 방호별감이 파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적어도 사료 B에서는 방호별감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주 기암성에 방호별감이 파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68) 성주 기암성 안에 일단의 야별초 병력이 들어와 있었다면 당연히 야별초 단위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야별초 지유가 그들을 지휘했을 것이다. 성주 기암성의 전략적 중요성과 교통로상의 중요성을 미루어 볼 때, 성주에 방호별감이 파견되지 않았더라도 야별초 지유가 내륙 요해처에 파견된 방호별감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기압성 입보민들에게 대몽항전에 커다란 자신감을 심어주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들만으로는 성주 기압성 전투 승전 배경을 모두 다 해명해주지는 못한다고 여겨진다.

성주는 운중도 내륙에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서 1231년 제1차 대몽전쟁 당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제1차 대몽전쟁 때 북계 홍화도·운중도에 위치한 여러 고을들이 몽골군에게 함락당하거나 몽골군에게 투항하거나 몽골군을 피해 바다 섬에 입보한 것과는 크게 차별된다. 1231년 당시 몽골군에게 함락당한 고을로는 함신진·선덕진·서창현·인주·철주·용주·선주·곽주·삭주·정주·안북부·평주·태주·운주·가주·창주 등이었는데,⁶⁹⁾ 이들 중 서해도의 평주를 제외하면 모두 다 북계 소속 고을들이다. 북계 소속 고을들 중에서도 운중도에 속한 운주·창주를 제외하면 함신진·선덕진·서창현·인주·철주·용주·선주·곽주·삭주·정주·안북부·태주·가주 등은 모두 다 홍화도 소속이다. 홍화도에 소속된 州鎮이 제1차 대몽전쟁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셈이다. 운주·창주 등 운중도에 속한 고을들 일부가 몽골군에게 함락되었을 만큼 운중도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운중도 고을인 성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1231년 당시 북계에서 바다 섬에 입보한 고을로는 선주·창주·운주·박주·가주·곽주·맹주·무주·태주·은주·함신진 등 11개 처가 산견된다.⁷⁰⁾ 이들 중 선주·박주·가주·곽주·태주·함신진은 홍화도 소속 고을이고, 창주·운주·맹주·무주·은주는 운중도 소속 고을인데, 1231년 당시 홍화도 소속 고을과 운중도 소속 고을의 해도입보가 숫자상으로 엇비슷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해도에 입보한 곳은 이미 몽골군에게 함락

69) 강제광, 「蒙古의 제1차 침공과 被陷 北界 14大城의 항전」, 『한국사연구』146, 2009, 49~51쪽.

70) 강제광, 위의 논문, 2009, 52쪽.

된 고을뿐만 아니라 예견되는 몽골군의 침입을 피해 고을 지휘부와 별초군의 항전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섬으로 들어간 고을 까지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해도입보 추진 대상에서 운중도에 위치한 성주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1차 대몽전쟁 이후에도 몽골군의 파상공세로 북계의 여러 주진이 몽골군에게 함락되거나 자진해서 항복하였다. 하지만 성주는 몽골 제5차 침입 때까지 몽골군에게 침입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은 성주가 운중도 A길에 위치하지 않고 운중도 내륙 안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북계와 동계가 서로 만나는 경계선에서 멀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몽골군으로서는 북계 고을들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성주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북계의 흥화도(서북대로)를 따라 안북부, 서경을 거쳐 신속하게 남진해 예성강, 한강을 건너 남쪽 주현을 공격했던 전략전술을 반복했던 것이다.

이러한 몽골군의 작전 수행 개념에 따라 북계 운중도 소속의 성주는 몽골군에게 장기간 공격당하지 않고 항전 능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면 성주가 북계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군사적 방어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고려사』 병지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C. 성주는 中郎將 1인, 郎將 3인, 別將 7인, 校尉 12인, 隊正 27인, 行軍 744인이 있다. 精勇은 10隊인데, 이 안에는 馬弩 각 1대가 있다. 左軍은 9대인데, 이 안에는 마·노 각 1대가 있다. 右軍은 3대이다. 保昌은 5대, 神騎는 17인, 步班은 33인, 白丁은 201대이다.⁷¹⁾

위의 사료 C를 보면, 성주의 주진군 편성을 알 수 있다. 성주

71) 『고려사』권83, 兵志3, 州縣軍 北界 成州.

에는 중랑장 1인, 낭장 3인, 별장 7인, 교위 12인, 대정 27인, 행군 744인이 있었다. 성주의 주진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군수를 알아보면 되는데, 성주의 행군수는 744명이어서 1,000명을 넘지 않았다. 이 정도 행군수는 북계 전체 고을들과 견주어서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아래의 북계 주진군 군액 일람표를 통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표 2〉 북계 주진군 군액 일람표⁷²⁾

기록 순서	북계 지역명	주진군 군액	행군수 순위	비고
1	서경 (西京)	정용 1령: 도령별장 1인, 좌·우부 별장 각 2인, 교위 10인, 대정 20인, 기두·행군 970인 보창잡군 19대: 행수·행군 931인	2위	1231년 몽골군 격퇴, 1233년 필현보 반란 진압
2	안북부 (安北府)	도령중랑장 1인, 중랑장 2인, 낭장 7인, 별장 14인, 교위 28인, 대정 58인, 행군 1,515인	6위	1231년 안북부전투 패전 이후 여·몽 사이에서 강화 체결
3	구주 (龜州)	도령중랑장 1인, 중랑장 2인, 낭장 7인, 별장 15인, 교위 30인, 대정 60인, 행군 1,642인	5위	1231년 구주성전투 승리
4	선주 (宣州)	도령중랑장 1인, 중랑장 2인, 낭장 6인, 별장 12인, 교위 25인, 대정 50인, 행군 1,337인	8위	1231년 몽골군에게 함락됨(해도입보 추진)
5	용주 (龍州)	도령중랑장 1인, 중랑장 2인, 낭장 8인, 별장 19인, 교위 23인, 대정 60인, 행군 1,778인	4위	1231년 몽골군에게 함락됨
6	정주 (靜州)	도령중랑장 1인, 중랑장 2인, 낭장 9인, 별장 19인, 교위 39인, 대정 79인, 행군 2,075인	1위	1231년 몽골군에게 함락됨
7	인주 (麟州)	중랑장 2인, 낭장 9인, 별장 18인, 교위 36인, 대정 72인, 행군 1,893인	3위	1231년 홍복원이 몽골군에게 투항함
8	의주 (義州)	중랑장 3인, 낭장 6인, 별장 12인, 교위 24인, 대정 48인, 행군 1,249인	9위	1231년 조속창이 몽골군에게 투항함
9	삭주 (朔州)	중랑장 1인, 낭장 5인, 별장 10인, 교위 22인, 대정 45인, 행군 1,209인	10위	1231년 몽골군에게 함락됨
10	창주 (昌州)	중랑장 1인, 낭장 4인, 별장 9인, 교위 18인, 대정 36인, 행군 971인	14위	1231년 몽골군에게 함락됨(해도입보 추진)
11	운주 (雲州)	중랑장 1인, 낭장 3인, 별장 8인, 교위 16인, 대정 31인, 행군 926인	16위	1231년 몽골군에게 함락됨(해도입보 추진)

72) <표 2>는 『고려사』권83, 兵志3, 州縣軍 北界조의 내용을 간추려서 작성한 것임을 일러둔다.

12	연주 (延州)	중랑장 1인, 낭장 4인, 별장 9인, 교위 18인, 대정 41인, 행군 1,052인	13위	
13	박주 (博州)	중랑장 1인, 낭장 5인, 별장 9인, 교위 19인, 대정 39인, 행군 1,387인	7위	1231년 몽골군에게 함락됨(해도입보 추진)
14	가주 (嘉州)	중랑장 1인, 낭장 5인, 별장 10인, 교위 21 인, 대정 43인, 행군 1,119인	12위	1231년 몽골군에게 함락됨(해도입보 추진)
15	곽주 (郭州)	중랑장 1인, 낭장 4인, 별장 9인, 교위 18인, 대정 36인, 행군 966인	15위	1231년 몽골군에게 함락됨(해도입보 추진)
16	철주 (鐵州)	중랑장 1인, 낭장 4인, 별장 8인, 교위 16인, 대정 32인, 행군 870인	20위	1231년 몽골군에게 함락됨
17	영주 (靈州)	낭장 4인, 별장 7인, 교위 14인, 대정 28인, 행군 729인	30위	
18	맹주 (猛州)	낭장 3인, 별장 5인, 교위 10인, 대정 20인, 행군 630인	36위	1231년 몽골군을 피 해 해도에 입보함
19	덕주 (德州)	낭장 4인, 별장 7인, 교위 14인, 대정 28인, 행군 778인	27위	
20	무주 (撫州)	낭장 4인, 별장 7인, 교위 14인, 대정 29인, 행군 801인	25위	1231년 몽골군을 피 해 해도에 입보함
21	순주 (順州)	중랑장 1인, 낭장 2인, 별장 7인, 교위 13인, 대정 27인, 행군 755인	28위	
22	위주 (渭州)	낭장 5인, 별장 8인, 교위 16인, 대정 20인, 행군 918인	17위	
23	태주 (泰州)	낭장 4인, 별장 7인, 교위 14인, 대정 28인, 행군 895인	19위	1231년 몽골군에게 함락됨(해도입보 추진)
24	성주 (成州)	중랑장 1인, 낭장 3인, 별장 7인, 교위 12인, 대정 27인, 행군 744인	29위	1259년 1월 기암성 전투 승리
25	은주 (殷州)	낭장 5인, 별장 8인, 교위 18인, 대정 33인, 행군 917인	18위	1231년 몽골군을 피 해 해도에 입보함
26	숙주 (肅州)	도령낭장 1인, 낭장 4인, 별장 8인, 교위 15 인, 대정 32인, 행군 95인	44위	
27	영덕성 (寧德城)	중랑장 1인, 낭장 4인, 별장 8인, 교위 16인, 대정 32인, 행군 832인	23위	
28	위원진 (威遠鎭)	낭장 4인, 별장 6인, 교위 12인, 대정 25인, 행군 689인	34위	
29	정용진 (定戎鎭)	중랑장 1인, 낭장 3인, 별장 7인, 교위 14인, 대정 28인, 행군 713인	32위	
30	영삭진 (寧朔鎭)	낭장 5인, 별장 8인, 교위 10인, 대정 32인, 행군 851인	21위	
31	안의진 (安義鎭)	낭장 4인, 별장 7인, 교위 14인, 대정 28인, 행군 711인	33위	

32	청새진 (淸塞鎭)	중랑장 1인, 낭장 3인, 별장 7인, 교위 15인, 대정 31인, 행군 830인	24위	
33	평로진 (平虜鎭)	중랑장 1인, 낭장 3인, 별장 7인, 교위 15인, 대정 21인, 행군 847인	22위	
34	영원진 (寧遠鎭)	낭장 4인, 별장 7인, 교위 13인, 대정 28인, 행군 783인	26위	
35	조양진 (朝陽鎭)	장 1인, 부장 1인, 중랑장 1인, 낭장 5인, 별 장 8인, 교위 20인, 대정 41인, 행군 1,143 인	11위	
36	양암진 (陽岳鎭)	장 1인, 중랑장 1인, 낭장 3인, 교위 7인, 대 정 14인, 행군 442인	37위	
37	수덕진 (樹德鎭)	장 1인, 별장 1인, 교위 2인, 대정 5인, 행군 153인	41위	
38	안용진 (安戎鎭)	장 1인, 낭장 1인, 별장 2인, 교위 4인, 대정 8인, 행군 206인	40위	
39	통해현 (通海縣)	낭장 1인, 별장 2인, 교위 5인, 정정 10인, 행군 274인	39위	
40	영청현 (永淸縣)	낭장 3인, 별장 4인, 교위 8인, 대정 16인, 행군 432인	38위	
41	함종현 (咸從縣)	낭장 1인, 가낭장 3인, 별장 6인, 교위 13인, 대정 26인, 행군 729인	31위	
42	용강현 (龍岡縣)	낭장 3인, 별장 6인, 교위 12인, 대정 24인, 행군 656인	35위	
43	삼화현 (三和縣)	별장 1인, 교위 2인, 대정 5인, 행군 135인	42위	
44	삼등현 (三登縣)	가별장 1인, 교위 2인, 대정 5인, 행군 121인	43위	

위의 <표 2> 북계 주진군 군액 일람표를 보면, 성주는 북계에 서 24번째로 기록되어 있는데 행군수가 744명으로 북계에서 전체 29위이다. 성주는 행군수가 1,000명이 넘지 않는 지역으로 전체에서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최고 지휘관은 중랑장 1명이 배정되어 있었으므로 도령중랑장이 배정된 지역보다는 군사적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⁷³⁾ 그렇더라도 성주에 중랑장 급이

73) 북계 주진군에서 최고 지휘관으로서 都領中郎將이 배치된 고을은 安北府, 龜州, 宣州, 龍州, 靜州 등 모두 5곳이다. 이들 5개 고을은 행군수가 1,000명이 넘는 巨鎭이었고 군사적 요충지였다.

배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중랑장 급인 의주·인주·삭주·곽주·철주·박주·가주·창주 등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북계에서 행군수 서열로 29위에 올라 있는 성주는 몽골의 제6차 침입 이전까지 해도에 입보한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몽골군에게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다. 1232년 강화천도 이후 내륙에서의 민란, 민심이반과 계속되는 몽골 침입으로 고려 주진군·주현군 방어 체제가 붕괴되고 점차 별초군 중심으로 군제가 재편되어⁷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더라도 성주가 몽골 제6차 침입 전까지 몽골 침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한다. 북계 서북대로에 위치한 행군수가 1,000명이 넘는 거진들(의주, 정주, 삭주, 인주, 용주, 가주 등)이 몽골군에게 함락된 것과는 크게 상반된다. 성주가 비록 행군수 규모는 북계에서 중간 정도였더라도 그간 몽골 침입을 받지 않아 몽골에 항전할 수 있는 州民들이 생존해왔고 여기에 강도에서 파견된 야별초부대의 지휘를 받았다면 기암성에서 북계에 주둔한 몽골군 1개 부대에 충분히 항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기암성에 입보한 성주민은 일정한 대몽항전 역량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서 무리가 아니며,⁷⁵⁾ 이들이 야별초 부대의 지

74) 申安湜, 「高麗中期의 別抄軍」, 『建大史學』7, 1989; 權寧國, 「武臣執權期 地方軍制의 변화」, 『국사관논총』31, 국사편찬위원회, 1992; 金潤坤, 「Ⅱ. 무인정권의 지배기구: 4. 별초군의 조직」, 『한국사18: 고려무인정권」,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윤근, 「제5장 별초군의 조직」, 『한국 중세의 역사상』, 영남대출판부, 2001; 신안식, 「제2장 무인정권의 대민정책 Ⅱ. 최씨정권의 집권강화책: 2. 대민지배의 강화 - 別抄軍의 例-」, 『고려 무인정권과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2002.

75) 물론 몽골 제6차 침입 당시 成州의 행군수 744명이 온전히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장기간의 대몽전쟁과 기근, 가뭄 등으로 주진군의 행군이 유망해서 행군수는 744명에 이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누차 강조하였듯이 성주는 몽골 제5차 침입 때까지 한 번도 몽골군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아서 북계 다른 고을들에 비해 몽골에 항전할 수 있는 역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휘를 받아 몽골군 1개 부대와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기암성전투 승전 배경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 전투의 전사적 의미에 대해서 공구해보기로 하자. 첫째, 『동여도』·『대동여지도』·『대동방여전도』 등에서 보이듯이 비교적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한 기암성에서 전투가 벌어져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험산대성’ 입보처에서의 승리였음을 강조할 수 있다. 대몽전쟁 말엽으로 갈수록 험산대성에서의 장기간 입보 항전이 늘어나는⁷⁶⁾ 만큼 기암성전투도 이러한 대몽항전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암성 입보민과 야별초 군사가 서로 협력하여 몽골군을 격퇴시켰다는 점에서 대몽전쟁 말엽에 군·관·민이 일체가 되어 적군에 항전했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제6차 대몽전쟁(1254~1259) 중 4차 전쟁(1258~1259) 때 북계에서 야별초 군사가 현지 주민과 협력하여 몽골군을 격파한 유일한 사례로서 기암성전투는 커다란 전사적 의미가 있다. 성주 기암성에 방호 별감이 파견되지 않았음에도 고려 최정예 부대인 야별초가 성주민을 지휘하여 몽골군 1개 부대를 대파한 것은 대몽전쟁사에서 특기할만한 일이다.

셋째, 운중도 A길과 B길 사이에 위치하였던 성주 기암성을 지켜냄으로써 몽골군이 북계 순주 방면에서 성주를 지나 동계 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당시는 동계에서 쌍성총관부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만약 몽골군이 성주 기암성을 점령하였다면 그들은 성주를 통과하여 동계 방면으로 나아가 쌍성총관부의 몽골세력과 호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

76) 김호준, 「高麗 對蒙抗爭期 險山大城의 入保用山城 出現」, 『선사와 고대』40, 2014, 199~213쪽.

에서 기암성전투는 북계의 몽골군 1개 부대를 격퇴하여 그들의 동계 방면으로의 진출을 차단하였다는 군사전략적 성격을 지닌다.

넷째, 기암성전투는 북계 방면에서 치러진 최후의 전투이자 북계에서 고려가 거둔 마지막 승리였으며, 이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하자 몽골군은 북계 방면에서 더 이상 전투를 치르지 않았고 동계·춘주도 방면에서 전투를 치렀다. 몽골군은 산길 대왕 휘하의 병력을 남진시켜 동계 방면에서 금강성전투, 한계산성전투,⁷⁷⁾ 춘주도 방면에서 천곡촌전투⁷⁸⁾를 차례로 치르는 등 동계·춘주도 방면에서 쌍성총관부의 영역을 확장시키려 하였으나 그마저도 실패하였다.⁷⁹⁾

다섯째, 기암성전투의 승리는 여·몽 사이에서 태자친조를 조건으로 하여 講和 회담을 서두르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1259년 1월 북계에서 기암성전투 승리, 1259년 3월 춘주도에서 천곡촌전투 승리를 기점으로 하여 몽골은 더 이상 고려와 전투를 벌이지 않았다. 그 대신에 고려가 태자를 몽골에 입조시키면 전쟁을 당장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당시 몽골은 황제 憲宗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남송 정벌에 나서고 있어서 고려 측 전선에 전력을 구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⁸⁰⁾ 이로써 여·몽 사이에

77) 윤용혁, 「여몽전쟁과 1259년 한계산성 전투」, 『역사와 역사교육』44, 2022, 16~24쪽.

78) 강재광, 「1259년 삼별초의 춘주(春州) 천곡촌전투(泉谷村戰鬪) 승전과 그 역사적 성격」, 『역사와 현실』121, 2021, 189~207쪽.

79) 1259년(고종 46) 초에 당시 몽골군은 東眞軍과 쌍성총관부의 投蒙高麗軍民까지 동원하여 1259년 2월에 寒溪山城戰鬪, 같은 해 3월에 泉谷村戰鬪를 치렀으나 고려 삼별초에게 모두 패배하였으므로 쌍성총관부의 영역은 春州道 영역까지 확장되지 못하였다.

80) 『元史』 憲宗 本紀에 의하면, 1258년(고종 45) 몽골 황제 헌종(몽케 칸)은 직접 남송 원정에 참여하였고, 1259년(고종 46) 8월 남송 원정 도중에 부상 후유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그 당시 몽골군은 남송 원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고려 쪽 전선에 집중할 수 없는 소이가 있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몽골 사이에 太子親朝를 조건으로 강화 협상이 성사된 것이라 하겠다.

서 강화 회담이 성사되었으며, 1259년 4월에 고려 태자가 실제로 몽골에 입조하기 위해 몽골로 떠나면서⁸¹⁾ 장기간의 대몽전쟁은 종결되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1259년 1월 북계 성주에서 기암성전투가 발발하게 된 배경을 먼저 규명해보고, 기암성의 위치 및 방어 입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기암성전투 승전 원인을 분석한 후에 이 전투에 전사적 의미를 부여해보았다. 그러면 본문에서 다루었던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몽골 제6차 침입(1254~1259) 중에서도 4번째 침입(1258~1259) 시기의 대몽외교·대몽전투의 전반적인 정황을 개괄하면서 성주에서 기암성전투가 치러지게 된 배경을 규명해보았다. 몽골군 원수 차라대는 애초에 고종과 태자의 서경으로의 출륙 및 항복을 요구했다가 고려가 반발하자 수위를 낮춰 태자의 출륙 항복을 강요하였으며, 강도 조정이 이를 재차 거부하자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서해도의 양파혈·가수굴 등 요해처 천연동굴을 함락시켰다. 이 시기 광복산성과 달보성 등에서도 입보민들이 방호별감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몽골군에게 투항하는 등 전세는 고려 측에 크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몽골군 지휘부는 강도 조정 측에 태자 출륙을 더욱더 압박하는 한편 동계 방면에 쌍성총관부가 설립되자 쌍성총관부 소속 몽골군과 양동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북계 운중도 내륙

81) 『고려사』권24, 고종 46년 4월 갑오.

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공격받지 않았던 요해처 산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몽골군 지휘부의 작전 개념 수립에 의해 북계 운중도의 요해처였던 성주 기암성이 몽골군의 새로운 공격 목표로 설정되었고 1259년 초에 기암성전투가 발발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북계의 몽골군 1개 부대는 쌍성총관부와와의 연락 및 양동작전을 위해서라도 동계에서 가까운 북계 동쪽에 있는 성주 기암성을 함락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성주 기암성의 위치와 방어 입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지지류인 『대동지지』에서는 기암성이 성주 읍치에서 북으로 30리에 있다고 하여 기암성의 방향만 알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지도류인 『동여도』·『대동여지도』·『대동방여전도』를 살펴보면, 기암성은 석성으로서 성천도호부 삼기면(이후 삼덕면으로 개칭) 안에 있는 두미산 좌측 산자락에 위치하였다. 기암성 앞에 비류강과 기창후천이 흘러 천연의 해자 역할을 하였고 기암성 뒤편으로는 험준한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으므로 몽골군에게 항전하기에 적합한 지형적 이점이 있었다. 기암성의 둘레, 높이, 방어시설 등은 전혀 알 수 없지만 『고려사』 병지에서 성주 주진군 행군수가 744명이고 성주 백성들이 기암성에 입보했을 것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성의 규모는 군사와 입보민을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성주는 고려 22역도 체계 중에서 운중도에 포함되었는데, 운중도 A길에 위치한 순주의 오른쪽에 성주가 있고, 운중도 B길에 위치한 양덕군 왼쪽에 성주가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지녔다. 성주는 운중도 A길과 B길의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성주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운중도

A길의 순주에서 운중도 B길의 양덕군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주를 거쳐야만 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면은 평안남도 순천군(고려시대의 순주)에 바로 접해 있다. 기암성이 속해 있는 성천군 삼덕면이 평안남도 순천군에 인접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북한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면 두미산에 위치한 기암성은 서쪽의 순주 방면에서 성주로 쳐들어온 몽골군을 방어하여 그들이 성주 동쪽의 양덕군 방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 중국에는 그들의 동계 진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기암성전투 승전 원인을 분석한 후에 이 전투에 대몽전쟁사에 있어서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보았다. 『고려사』에는 1259년 1월 3일(정미일)에 몽골군이 성주의 기암성을 공격하자 야별초가 기암성 안의 사람들을 이끌고 싸워서 그들을 크게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암성을 공격한 몽골군 장수는 사료 상에서 군대를 이끌고 남진하였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보파대였을 것으로 추정해보았다. 보파대는 최초 주둔지 파주에서 운중도 순주 방면으로 남하하여 휘하 1천 기병대를 중심으로 성주 기암성을 공격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기암성전투 사료에서 야별초 병력 규모는 나타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대몽전쟁기에 야별초 부대는 100~200명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에 분견되었기 때문에 기암성전투에 참전하였던 야별초 병력도 100~200명 정도였거나 2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야별초 부대를 이끌었던 지휘관의 성명과 무관직은 알 수 없지만 야별초 지유가 야별초 병력과 기암성 입보민을 총괄 지휘했을 것이며, 또한 야별초 지유가 방호별감은 아니었더라도 방호별감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을 개연성도 있었다.

기암성전투 승전 원인은 기암성이 비류강·기창후천에 둘러싸여 있고 비교적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적군 방어에 유리하였다는 점, 고려 최정예 군사집단이었던 야별초가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성주민의 항전 역량이 1259년까지 일정하게 보전되고 있었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 성주는 1231년 제1차 대몽전쟁 당시 몽골군에게 함락당하지 않았고, 그 해부터 추진된海道입보 대상 고을도 아니었으며, 몽골 제6차 침입 이전까지 몽골군의 침입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주민의 항전 역량은 대몽전쟁 말엽까지 건재했으며 야별초 병력과 합세하여 기암성에서 몽골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성주 기암성전투는 전체 대몽전쟁사에서 다음과 같은 전사적 의미가 있었다. 첫째, 성주 내의 험준한 두미산 좌측 산자락에 위치한 기암성에서 전투를 벌여 이겼다는 점에서 ‘험산대성’ 입보처에서의 승리였다. 둘째, 기암성전투는 제6차 대몽전쟁 때 북계에서 야별초 군사가 입보민과 협력하여 몽골군을 물리친 유일한 사례였다. 셋째, 기암성전투는 북계에 주둔했던 몽골군 1개 부대를 기암성에서 격퇴하여 그들의 동계 방면으로의(혹은 쌍성총관부 방면으로의) 진출을 차단하였다. 넷째, 기암성전투는 북계 방면에서 치러진 최후의 전투이자 북계에서 고려가 거둔 마지막 승리였으며, 이 전투에서 몽골군이 패배하자 그들은 북계 방면에서 더 이상 전투를 치르지 않았다. 다섯째, 기암성전투 승리는 여·몽 사이에서 태자친조를 조건으로 하여 강화 회담을 서두르게 하였고, 중국에는 대몽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참고문헌〉

1. 사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元史』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東輿圖』 『大東輿地圖』 『大東方輿全圖』

2. 연구서

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경인문화사, 201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18: 고려무신정권』, 1993.
김윤곤, 『한국 중세의 역사상』, 영남대출판부, 2001
김호준, 『고려 대몽항쟁과 축성』, 서경문화사, 2017.
신안식, 『고려 무신정권과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2002.
柳在城, 『對蒙抗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8.
尹龍嫻,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윤용혁,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혜안, 2011.

3. 연구 논문

강재광, 「蒙古의 제1차 침공과 被陷 北界 14大城의 항전」, 『韓國史研究』 146, 2009.
강재광, 「1259년 삼별초의 춘주(春州) 천곡촌전투(泉谷村戰鬪) 승전과 그 역사적 성격」, 『역사와 현실』121, 2021.
權寧國, 「武臣執權期 地方軍制의 변화」, 『國史館論叢』31, 국사편찬위원회, 1992.
金潤坤,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4. 별초군의 조직」, 『한국사18: 고려 무신정권』,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윤곤, 「제5장 별초군의 조직」, 『한국 중세의 역사상』, 영남대출판부, 2001.
김호준, 「高麗 對蒙抗爭期 險山大城의 入保用山城 出現」, 『선사와 고대』

40, 2014.

申安湜, 「高麗中期의 別抄軍」, 『建大史學』7, 1989.

윤용혁, 「여몽전쟁과 1259년 한계산성 전투」, 『역사와 역사교육』44, 2022.

홍민호, 「고려·몽골 전쟁기 방호별감(防護別監)의 운영과 내륙 입보의 보완」, 『한국사연구』193, 2021.

4. 기타 자료

평화문제연구소 편, 『조선향토대백과』, 200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도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권,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대동방여전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권,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동여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권, 1991.

<Abstract>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ory of Seongju(成州) Kiamseong(岐巖城) Battle in Bukkye(北界) Province in 1259

Kang, Jae-Gwang

According to the maps of the late Joseon Dynasty, 『Dongyeodo(東輿圖)』, 『Daedongyeojido(大東輿地圖)』, and 『Daedongbangyeojedo(大東方輿全圖)』, Seongju(成州) Kiamseong(岐巖城) was a stone castle located on the left side of Dumi Mountain(頭尾山) in Samgi-myeon(三岐面: now Samdeok-myeon(三德面), Seongcheon-gun(成川郡), Pyeongannamdo, North Korea). The Battle against Mongol army took place in January 1259 (the 46th year of King Gojong's reign), and the troop of Yabyeolcho(夜別抄) and Seongju people cooperated with each other to defeat a Mongol army unit that is believed to have been led by a Mongol general, Bopadae(甫波大). The Battle of Kiamseong was the last victory of Goryeo in Bukkye(北界) at the end of the 6th invasion of Mongolia (1254-1259) and the only victory of the military, government, and people in cooperation. A unit of Yabyeolcho was already dispatched to Kiamseong in 1258, and Jiyu(指諭) of Yabyeolcho, who is believed to have acted as a Banghobyulgam(防護別監), commanded the soldiers of Yabyeolcho(about 200 soldiers) and the people of Seongju to repel the Mongol cavalry.

The main reason for the victory of the Battle of Kiamseong

was that the Kiamseong Fortress was surrounded by the Biryu River(沸流江) and Gijanghucheon River and was located in a relatively rugged mountainous area, which was advantageous for defending the enemy, that Yabyeolcho, the best military force of Goryeo, was involved in the battle, and that the castle residents' fighting capabilities, which had never been invaded by Mongol forces until the 5th invasion of Mongol, were maintained until 1259. As a result of the victory of this battle, the Mongol army stationed in Bukkye no longer attacked various fortresses in the Northern Territories of Goryeo, and the the peace negotiations between Goryeo and Mongol on the condition of Taejachinjo(太子親朝) were accelerated, eventually contributing to the conclusion of the peace negotiations toward Mongol in April 1259.

Keywords: Seongju(成州) Kiamseong(岐巖城), Kiamseong battle, 『Dongyeodo(東輿圖)』, 『Daedongyeojido(大東輿地圖)』, 『Daedongbangyeojedo(大東方輿全圖)』, Yabyeolcho(夜別抄), Jiyu(指諭) of Yabyeolcho, Bopadae(甫波大), Taejachinjo(太子親朝), the peace negotiations toward Mongol

원고투고일 : 2025. 7. 10. 심사완료일 : 2025. 8. 22. 게재확정일 : 2025. 9. 8.